

조기은퇴남성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The Factors Affecting Early Retired Men's Subjective Life Satisfaction

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지경*

인하대학교 소비자학 전공

박사수료 송현주**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Research Fellow : Kim, Ji-Kyung

Dept. of Consumer and Child, Inha Univ.

Doctoral Course : Song, Hyun-Ju

<Abstract>

Using the first wave of KLoSA(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beta version, this study analyzed factors affecting early retired men's subjective life satisfaction through Binary Logit and Multiple Regression. Total 552 men were selected as a sample.

The main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in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 retirement reason(health-) and monthly household income(+) affected whether they were satisfied with the retirement life or not and subjective life satisfaction over all. Especially, the retirement reason(health-) had a stronger effect on whether early retired men were satisfied with the retirement life or not and their subjective life satisfaction than monthly household income revealed significant variable in previous studies. This result represents that the retiree's life satisfaction analysis model must include retiree's characteristics at the time of retirement as well as retiree's current status characteristics or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주요어(Key Words) : 조기은퇴 남성(early retired men), 은퇴생활(retirement life), 주관적 삶의 만족도(subjective life satisfaction)

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 남성들은 55세를 전후하여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물러나 12-14년 정도 고용의 질이 낮은 가교 일자리에서 근로 활동을 한 후 최종 68.2세에 완전 은퇴(OECD, 2004)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소득활동을 중단하고 앞으로 소일거리 이상의 일을 할 생각이 없는' 완전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은퇴연령을 분석한 최근 연구들(김지경·김하늬,

2008; 석상훈, 2009; 신화용·조병은, 1999; 전병힐, 2008)에 의하면 평균 완전 은퇴 연령은 43~58.4세로 OECD에서 발표한 최종 은퇴연령에 비해 낮다. 이는 연령차별이나 중고령 인력 고용기피 등의 사유로 정년퇴직을 비롯해 근로생애의 주된 일을 그만둔 이후 재취업의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물러나 비경제활동으로의 전환이 이른 시기에 이루어져, 결국 완전 은퇴생활이 60세 이전에 시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남성들에게 있어 일자리는 전통적 가부장 문화의 영향으로 사회적 존재의 이유를 포함하는 역할로서 인식되어 왔으므로, 은퇴로 인한 직업 및 사회로부터의 고립은

* 주 저 자 : 김지경 (E-mail : kagada@hotmail.com)

** 교신저자 : 송현주 (E-mail : marie8026@gmail.com)

은퇴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명자, 1982). 이는 사회적·가정 내 역할 상실의 결과로도 이어져 은퇴자들은 은퇴 이후 급격히 낮아진 소득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사회적 지위·사회적 관계에서 소외된다(이춘희·옥선화, 1994). 또한 은퇴 후 소득원의 상실과 소득수준의 급격한 하락은 경제적 복지수준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은퇴자들이 충분한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할 경우 은퇴 이후 삶의 질 하락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Voydanoff와 Donnelly(1999)는 한 역할에서 얻는 부정적인 경험이 심리적 안녕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더라도 다른 역할에서 얻는 만족이 크다면 전반적인 심리적 안녕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하였는데, 이들의 가설에 따르면 은퇴한 남성들의 경우 전체 삶의 만족도를 구성하는 하위 영역의 만족도들 중 상실된 직업영역의 만족도 이외의 다른 영역에서의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면, 그들의 은퇴 후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거나 유지할 수 있는 실행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들의 삶의 만족도의 수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해야 한다.

지금까지 은퇴자들의 삶의 만족도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은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은퇴자를 둘러싼 환경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주로 은퇴자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와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수들과 가구소득, 가족관계 등의 경제적·환경적 요인들이 은퇴자 삶의 만족도의 영향요인으로 밝혀졌으며, 대체로 남성이 여성보다, 무배우자보다는 유배우자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경제상태가 여유 있다고 느낄수록, 은퇴 시 자산을 많이 보유할수록,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거나 건강하다고 느낄수록, 배우자나 자녀 등의 유대관계가 좋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를 보였다(김미령, 2006; 김숙경, 2004; 김은미, 2000; 모선희·강지현, 2003; 석말숙, 2004; 이가옥 등, 2002; 이은희 등, 2004; 이호성, 2005; 한형수, 2004; Berg et al., 2006; Biswas-Diener et al., 2004; Fiori et al., 2006; Motel-Klingebiel et al., 2003; Smith et al., Sugisawa et al., 2002).

그러나 기존 연구들에서는 평균 은퇴연령의 하락으로 인해 비자발적 은퇴자가 증가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실적인 측면들이 분석모형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 주로 사용된 은퇴자의 삶의 만족도 분석모델에서는 은퇴자들의 은퇴시점의 특성들, 예컨대 은퇴사유나 은퇴연령, 은퇴 전 일자리에서의 소득 등이 분석모델에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은퇴이후 삶의 만족도에 현재 상태의 조건들이 미치는 영향만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어떠한 이유로 은퇴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즉 은퇴에 이르게 된 과정을 추측할 수 있는 정보와 은퇴시점의 사회·경제적 변수들을 누락시키고, 근로생애의 연장선상에서 경험하는 은퇴생활에서의 삶의 질

을 은퇴 후 현재 시점의 정보들만으로 설명한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의 은퇴가 은퇴준비를 충분히 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은퇴자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에 의한 비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보면, 은퇴자의 삶의 만족도의 영향요인을 분석함에 있어 은퇴자 개인 및 환경적 요소뿐만 아니라 은퇴시점의 소득, 은퇴 연령, 은퇴사유와 같은 은퇴관련 특성도 함께 고려되어 분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특성들은 은퇴 후 은퇴자 본인과 그가 속한 가구의 경제적 상태 및 은퇴자의 삶의 질과 같은 연속선상에 놓이므로, 은퇴 후 삶의 만족도의 영향요인을 분석함에 있어 시간 분절적으로 은퇴 이후의 특성만을 살펴볼 것이 아니라, 은퇴 이전의 특성들이 은퇴 이후에도 지속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기존에 은퇴자의 삶의 만족도의 영향요인으로 밝혀졌던 은퇴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은퇴생활 관련 특성뿐만 아니라 은퇴시점을 포함한 은퇴 이전의 특성까지 포함한 분석모델을 구성하여, 조기에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은퇴한 중고령 은퇴남성의 삶의 만족여부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은퇴 후 생활의 적응

우리나라에서는 낮은 정년 연령, 은퇴에 따르는 준비 부족, 사회복지제도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 지각 수준이 서구 사회에 비하여 더 높다고 보고된 바 있다(신현구, 2007). 이는 준비된 은퇴가 아니라면 갑자기 변화된 삶에 대한 적응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은퇴 후 생활적응과 관련하여 진행된 연구들의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경제적 기반 상실로 인한 은퇴생활 부적응이다(강인, 2007; 김형태, 2005; 배문조·전귀연, 2004; 성미애, 1999; 신화용·조병은, 2001; 한혜경, 2003; 한희자·강은실, 2001; Bosse et al., 1991; Gallo et al., 2006; Fouquereau & Fernandez, 2005). 은퇴자들은 은퇴 이후 경제수준이 낮다고 인식할수록 은퇴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는데, 이는 은퇴 이전의 경제수준뿐만 아니라 은퇴 이후 생활수준에 대한 상대적 비교감이나 소득적정감이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특히 은퇴한 남성의 경우에는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이 낮고 은퇴 후 경과기간이 짧을수록 은퇴 후 경제수준 변화로 인한 어려움을 더 크게 받아들인다.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들은 일관적으로 은퇴자들에게 있어 경제적 측면이 은퇴적응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한다.

기존의 연구결과들은 평균적인 은퇴연령보다 비교적 일찍 경제력을 상실한 조기은퇴자들의 경우, 은퇴 이후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준비를 하지 못한 채 갑작스러운 은퇴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은퇴 후 삶에 적응하지 못하고 스스로 인지하는 은퇴 생활의 수준이 낮을 것임을 시사한다.

둘째, 은퇴로 인하여 은퇴자들은 가족 및 사회적 관계에 있어 질적인 변화를 경험한다(김은미, 2000; 윤진, 1985; 조병은, 1990; 최정혜, 1991; Bromley, 1990).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은퇴는 가족 내 갈등의 증가, 가까웠던 직장동료나 친구들과의 유대관계 약화, 직업과 관련된 수많은 사회적인 활동에 참여할 기회의 상실 등, 사회관계망 축소에서 오는 위축감과 더불어 일시적인 우울이나 불안을 초래하여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킨다. 뿐만 아니라 동일 연령대의 계속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은퇴자는 행복감이나 삶에 대한 만족도, 자신감이 낮고 정신질환이 많다. 그러나 은퇴로 인한 인간관계의 질적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에 있어서는 가족 내 지지가 도움이 된다. 은퇴 후 배우자를 비롯한 자녀 등, 가족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이들의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은퇴생활 적응도는 높다. 따라서 조기에 은퇴한 사람들의 경우 가족이나 사회적 관계의 변화로부터 경험하는 스트레스로 인해 은퇴 이후 자신과 관계된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이는 은퇴생활 부적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은퇴라는 경험은 정신적·신체적 약화를 초래한다(김효정 등, 2007; 이승렬, 2007; 한혜경, 2003). 이는 '일하는 것'이 남성의 중요한 사회적 역할로 인식되는 우리사회에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매우 큰 스트레스로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혜경(2003)의 서울시 거주 50대 조기퇴직자의 우울감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는 조사대상자의 60%가 우울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27.2%가 심한 우울감을 느낀다고 하였고, 이승렬(2007)의 연구에서는 은퇴자의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1년 전 대비 주관적 건강상태 변화 포함)와 객관적 건강상태(질병 보유 여부, 아파서 쉬 경험, 활동 제한, 감각기관 장애, 육체적 제약, 활동 제약) 모두 좋지 않은 비율이 높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연구대상이 주로 중고령자이기 때문에 노화과정에서 얻게 되는 신체적 질환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은퇴가 정신건강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은퇴자가 은퇴 이후 건강한 삶을 누리는 것이 쉽지 않음을 짐작케 한다.

2. 삶의 만족도 개념 및 측정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는 사회적 조건 및 제도와 사회성원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를 반영하며, 개인의 삶을 가치 있고 보람 있게 만들어주는 총량으로서의 만족감을 의미한다(김상균 등, 1996). 따라서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는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요소로 평가되어지는데, 이와 관련한 기존의 선행연구들(모선희·강지현, 2003; 박민서·조규범, 2003; 박기남, 2004; 유정이, 2006; 오승환·윤동성, 2006; 조규범, 2005; 조명한·차경호, 1998; Campbell, et al., 1976)에서 삶의 만족도는 생활만족도 혹은 삶의 만족도 등의 용어로 일컬어진다. 이들 연구들에서 삶의 만족도는 공통적으로 개인의 심리적인 특성과 환경적 여건뿐만 아니라 개인 생활의 역사에 영향을 받으며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 방식은 삶에 만족하는 과정을 귀납적 과정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Campbell 등(1976)의 접근에 따르면, 사람들은 삶을 구성하는 개별 영역에 대하여 만족하게 될 때 삶 전반에 대한 만족을 얻게 되며, 삶의 개별 영역에 대한 만족은 삶의 개별 영역의 객관적 조건을 반영한다. 따라서 이 이론에 따르면, 삶의 만족도 측정은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 및 객관적 요소와 개별 영역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예컨대, 건강상태가 좋을 때 건강영역에 대한 삶의 만족이 높고, 소득이 많을 때 물질영역에 대한 만족이 높고, 또 가족관계가 좋을 때 가족 영역의 삶에 대한 만족이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개별 영역에 대한 만족이 높아짐에 따라서 전반적인 삶의 만족이 높아진다는 접근이다. 귀납적 접근방식에 따른 연구에서의 삶의 만족도 측정은 삶의 만족도를 여러 개별 만족도를 통해 측정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객관적, 환경적 여건을 측정하는 것이 보편적이다(모선희·강지현, 2003; 조규범, 2005).

두 번째 방식은 삶에 대한 만족을 연역적 과정으로 파악하는 것이다(조명한·차경호, 1999). 이는 개인의 성격적인 특질에 따라 동일한 조건에 대하여도 만족 혹은 행복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므로, 외적 조건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내적인 심리적 특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연역적 접근은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만족 혹은 행복과의 관계의 강도가 매우 낮다는 사실에 접근하여 이를 기존의 귀납적 접근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는 반발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 접근 방식에 따르면 객관적 조건보다는 자기존중감, 외향성, 낙관적 성격, 통제감과 같은 성격특성이 주관적 안녕감을 결정하는 데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역적 접근으로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연구들에서는 주로 삶의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심리척도를 사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박기남, 2004; 유정이, 2006; 오승환·윤동성, 2006).

특히 중고령자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주관적 인지에 따른 삶의 만족도가 강조되었다. 이들이 인지하는 주관적인 삶의 만족은 궁극적으로 그들이 자신의 일생에 관한 생의 목표 달성파도 직접 연결될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성공적인 삶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현지·이금자, 2008). 이들의 삶의 질은

건강과 소득, 주거환경, 가족을 포함한 사회적 관계, 여가 및 사회활동 등의 영역들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의 전체적인 합으로 제시된다(한형수, 2008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근거로 귀납적 접근방식을 채택하여 건강상태 만족도, 경제상태 만족도,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동년배와 비교 시 상대적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라는 다섯 가지 하위 차원의 만족도를 통해 주관적 삶의 만족도를 측정할 2차 자료를 사용하였다. 귀납적 접근방식을 채택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주로 은퇴자들의 사회인구학적 변수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삶의 만족도가 과거와 현재의 상태가 복합된 데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들에서 주로 다루었던 사회인구학적 변수를 은퇴자의 현재 상태를 반영하는 특성으로 본다면, 과거의 상태를 반영하는 특성이 추가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은퇴자의 은퇴시점의 연령, 은퇴 전 마지막 일자리에서의 취업형태, 은퇴 전 소득, 은퇴사유 등의 변수를 은퇴관련 특성으로 설정하여 은퇴자의 은퇴 이전의 상태를 분석모델에 반영하였다.

3. 은퇴자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퇴자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는 정상적인 은퇴자들보다 조기에 은퇴한 이들의 삶의 만족도의 수준이 낮다는 결과를 일관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55세 이전에 조기은퇴한 사람들의 경우 전반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낮다는 결과(김애순·윤진, 1995; 윤진, 1995)를 고려해보면, 이른 나이에 은퇴하는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삶의 질이 높은 수준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의 결과(김미령, 2006; 김숙경, 2004; 김은미, 2000; 모선희·강지현, 2003; 석말숙, 2004; 이가옥 등, 2002; 이은희 등, 2004; 이호성, 2005; 한형수, 2004; Berg et al., 2006; Biswas-Diener et al., 2004; Fiori et al., 2006; Motel-Klingebiel et al., 2003; Smith et al., Sugisawa et al., 2002)에 따르면, 은퇴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그들의 환경적 특성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경제상태,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으로, 대체로 남성이 여성보다, 무배우자보다는 유배우자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경제상태가 여유 있다고 느낄수록, 은퇴 시 자산을 많이 보유할수록,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거나 건강하다고 느낄수록, 배우자나 자녀 등의 유대관계가 좋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들에 비추어 보면, 은퇴 후 가족의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경제적·신체적 상태가 좋지 못한 조기은퇴자들의 삶의 만족도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추측된다.

소수이기는 하나, 은퇴자의 삶의 만족도에 은퇴의 자발성

여부, 은퇴시기, 은퇴 후 경과기간 등의 은퇴관련 특성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모선희·강지현, 2003; 윤진, 1995; 김애순·윤진, 1995)이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자발적 은퇴자가 비자발적 은퇴자보다, 은퇴시기가 정상은퇴(62-65세)일 경우가 조기은퇴이거나 늦은 은퇴일 경우보다, 은퇴 후 경과기간이 2.5년인 경우가 그보다 이르거나 늦게 은퇴한 경우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되었다.

이러한 은퇴자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삶의 만족도의 측정방식이 연구자마다 달라, 은퇴자의 주관적 평가에 의한 삶의 만족도를 자료로 사용한 연구결과와 소득 등의 객관적 지표를 통해 분석된 연구결과가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또한 삶의 만족도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모델에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변수들만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연구들이 대다수로, 은퇴사유나 은퇴 전 마지막 일자리의 정보 등 은퇴관련 특성이 분석모형에 투입된 연구는 매우 적었다. 따라서 은퇴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 분석모델을 설정했을 경우, 투입된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양자를 모두 고려하여 조기에 은퇴한 남성들의 주관적 평가에 기초하여 측정된 2차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분석모형에 투입될 독립변수로는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은퇴관련 특성을 설정하였다.

I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의 고령화연구패널 조사(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이하 KLoSA) 1차년도(2006년)자료 베타버전이다. KLoSA 1차년도 자료에서는 45세 이상의 중고령자 10,254명을 원표본으로 구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경제 및 사회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을 조사하였다. KLoSA에서는 은퇴자를 판별하기 위하여 '____님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를 묻고, 이에 대한 응답을 3가지(① 과거에 일하였으나, 지금은 은퇴하였다, ② 과거에 일하였고 앞으로도 일할 의사가 있으나 당장은 일자리를 구하고 있지 않다, ③ 뚜렷한 직업을 가진 적이 없다)로 측정한다. 이 중 본 연구의 분석대상자는 ①의 응답자 중 남성이면서 만 60세 이전)에 은퇴한 552명이다²⁾.

1) 통상 '은퇴'라는 용어는 은퇴 시기 이전에 본격적인 소득활동을 중단하고 현재는 일을 하지 않거나 소일거리 정도의 일을 하는 상태, 또한 앞으로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소일거리 이상의 일을 할 의사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년으로 일자리를 그만두는 것과는 구분됨. 우리 사회의 노동시장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일자리에서 물러나는 연령은 낮아

<표 1>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552)

구 분	항 목	빈도(%)	
현재 상태 관련 특성	현재 연령	60세 미만	139(25.2)
		60세~64세	114(20.7)
		65~70세	140(25.4)
		70세 이상	159(28.8)
		평균(세)	65.85(8.42)
	교육수준	무학 및 초졸	169(30.6)
		중 졸	91(16.5)
		고 졸	186(33.7)
		전문대 이상	106(19.2)
		평균(년)	10.05(4.20)
	거주지역	서울 및 광역시	270(48.9)
		기타 지역	282(51.1)
배우자 유무	유배우자	489(88.6)	
	무배우자	63(11.4)	
가구월소득	50만원 미만	220(39.9)	
	50만원~100만원 미만	64(12.5)	
	100만원 이상	201(36.4)	
	무응답	62(11.2)	
	평균(만원)	128.04(443.76)	
은퇴 연령	49세 이하	124(22.5)	
	50세~54세	130(23.6)	
	55세~57세	157(28.4)	
	58세~59세	141(25.5)	
	평균(세)	52.95(6.24)	
은퇴시점의 취업형태	임금근로자	400(72.5)	
	고용/자영업자	149(27.0)	
	무급가족종사자	3(0.5)	
은퇴시점의 일자리 직종	전문관리직	62(11.2)	
	준전문사무직	162(29.3)	
	판매서비스직	77(13.9)	
	생산기능직	114(20.7)	
	농림어업·단순노무직	117(21.2)	
	무응답	20(3.6)	
은퇴시점의 소득액 ³⁾	100만원 이하	194(35.1)	
	200만원 이하	148(26.8)	
	201만원 이상	134(24.3)	
	모름 및 무응답	76(13.8)	
	평균(만원)	190.55(225.86)	
은퇴시점의 공적연금 가입여부	가 입	205(37.1)	
	미가입	347(62.9)	
은퇴사유	스스로 원해서	194(35.1)	
	파산/도산 및 장사영업부진/정리해고/명예퇴직	102(18.5)	
	정년퇴직	134(24.3)	
	건강 및 노령의 사유	122(22.1)	

지는 추세에 있으나, 은퇴연령 및 조기은퇴 연령에 대한 통일된 기준은 부재함.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적연금 수급연령 이전까지는 근로활동을 하고, 연금수급연령부터 은퇴한다는 가정을 토대로 조기은퇴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하였음. 국민 연금의 완전노령연금 수급연령이 만 60세이므로, 이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은퇴한 것으로 조기은퇴로 보았음.

2) KLoSA 데이터에서는 은퇴와 관련하여 은퇴시기를 측정하고 있음. 이를 은퇴 시기의 연령으로 환산하여 60세 이전에 은

KLoSA에서 은퇴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___님께서 은퇴한 것에 대하여 현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라고 묻고, 이에 대한 응답은 3가지 범주(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하는 편이다,

③ 만족하지는 않음)로 측정하였음. 은퇴시기는 은퇴연령과의 다중공선성을 고려하여 모델에서 제외하였음.

3) 은퇴시점 년도의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표 2> 분석변수의 조작적 정의

구 분	변 수	변수값	
독립변수	거주지역	1. 서울 및 광역시(0. 그 외)	
	배우자 유무	1. 유배우자 (0. 무배우자)	
	은퇴 전 취업형태	1. 임금근로 (0. 그 외)	
	가변수	은퇴 전 일자리 직종	1. 전문·관리직
			1. 준전문·사무직
			1. 생산·기능직
	독립변수	은퇴 전 일자리에서의 공적연금 가입여부	1. 판매·생산직
			0. 농림어업·단순노무
			1. 가입 (0. 그 외)
	독립변수	은퇴사유	0. 스스로 원해서
1. 파산도산 등 (0. 그 외)			
1. 정년퇴직 (0. 그 외)			
연속변수	현재 연령	1. 건강 및 노령(0. 그 외)	
	교육수준	만나이	
	가구월소득	교육년수	
	은퇴 연령	조기은퇴남성 작년 한해 가구 월소득의 자연대수	
	은퇴 전 소득액 ⁴⁾	은퇴시 만나이	
가변수	은퇴에 대한 전반적 만족여부	은퇴시점의 CPI(2005년=100)를 적용한 은퇴 전 월소득의 자연대수	
종속변수	연속변수	1. 만족 (0. 불만족)	
		건강상태 만족도	0~100
		주관적 경제상태 만족도	
		삶의 만족도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자녀관계 만족도			
		동년배 비교 시 상대적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③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로 측정한다. 전체 552명의 분석 대상자 중 '① 매우 만족한다'의 응답자는 27명(4.9%), '② 만족하는 편이다'의 응답자는 298명(54.0%), '③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의 응답자는 227명(41.1%)으로, 은퇴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분포가 ②와 ③에 절반 이상이 편중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는 ①과 ②는 만족으로, ③을 불만족하는 것으로 은퇴에 대한 전반적 만족여부를 재분류하였다.

KLoSA에서 삶의 만족도 하위 영역은 5가지 항목(1.건강상태 만족도, 2.경제상태 만족도, 3.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4.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5.동년배와 비교 시 상대적인 삶의 만족도)으로 나누어 측정한다. 각 하위 영역에 대해 '_____님께서 자신의 1~5.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응답자는 면접원이 제시하는 보기카드(0점에 가까울

CPI) 반영하여 계산하였음.

- 4)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 CPI)는 1965년부터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분석대상의 은퇴시점이 1965년 이전(1957년 (1건), 1960년(1건))인 경우에는 1965년의 CPI를 적용하였음.

수록 만족하지 않는 것이고 100점에 가까울수록 만족하는 것으로, 10점 단위로 측정한다)를 보고 만족하는 정도를 응답한다. 본 연구의 분석모델에서는 삶의 만족도의 다섯 가지 하위 요인에 대해 응답자가 응답한 원점수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2. 분석방법 및 분석변수

조기 은퇴자의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이론과 선행연구에서의 결과, 그리고 표본수를 고려하여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한 변수를 선정하였다. 그 결과 조기은퇴남성의 현재상태관련 변수와 은퇴관련 특성 변수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조기은퇴남성의 현재상태관련 특성으로는 조기은퇴남성의 현재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역, 배우자 유무, 가구월소득을 선정하였다. 은퇴관련 특성으로는 은퇴연령, 은퇴 전 취업형태, 은퇴 전 일자리 직종, 은퇴 전 소득액, 은퇴 전 일자리에서의 공적연금 가입여부, 은퇴사유를 선정하였다. 은퇴 전 일자리에서의 공적연금 가입여부는 선행연구들에서 크게 다루어지지 않았으나, 은퇴로 인해 소득단절을 경험하는

은퇴자들에게 있어 공적연금 은퇴 이후 소득보장에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질 것이라 판단하여 분석모델에 투입하였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3가지 서열화된 범주(①매우 만족한다, ②만족하는 편이다, ③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로 측정된 은퇴에 대한 만족도의 응답 비율 중 '매우 만족한다'에 대한 응답자의 비율이 전체의 4.9% 밖에 되지 않아 은퇴에 대한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서열로짓모델(Ordered Logit Model) 설계가 불가능하였다. 이와 같은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는 원자료의 은퇴에 대한 만족도의 변수값인 '매우 만족한다'와 '만족하는 편이다'를 '만족'으로,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를 '불만족'으로 재범주화하고, 이를 '은퇴에 대한 전반적 만족여부'로 설정한 후, 이를 종속변수로 하는 이항로짓모델(Binary Logit Model)을 이용하여 조기은퇴남성의 은퇴 후 전반적 만족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조기은퇴남성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관적 삶의 만족도를 구성하는 5가지 하위범주인 ①건강상태 만족도, ②경제상태 만족도, ③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④자녀관계 만족도, ⑤동년배와 비교 시 상대적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각각을 종속변수로 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다회귀 모델(Multiple Regression Model)로 분석하였다.

이항로짓모델과 중다회귀모델에서의 독립변수 중 조기은퇴남성의 거주지역(서울 및 광역시:1, 그 외:0), 배우자 유무(유배우자:1, 무배우자:0), 은퇴 전 취업형태(임금근로:1, 그 외:0), 은퇴 전 일자리 직종(농림어업·단순노무:0, 그 외:1), 은퇴 전 일자리에서의 공적연금 가입 여부(가입:1, 그 외:0), 은퇴사유(스스로 원해서:0, 그 외:1)는 가변수(Dummy variables) 처리하였다. 가구월소득과 은퇴 전 소득액은 월소득의 자연대수를 취하였고, 조기은퇴남성의 교육수준은 교육년수로 환산한 후 현재연령, 은퇴연령과 함께 연속변수로 분석되었다. 모델 분석에 포함된 독립변수들의 상관계수값은 0.0~0.6 수준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우려되지 않는다. 이상의 통계분석은 SPSS 13.0으로 분석되었다.

IV. 분석결과

1. 조기은퇴남성의 은퇴에 대한 전반적 만족여부 결정요인

<표 3>은 분석대상인 조기은퇴남성의 은퇴에 대한 전반적 만족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이다. Model I 부터 Model VII까지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모든 모델에서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은퇴사유(건강상의 이유)(-)와 가구월소득(+)으로 나타나, 이 두 변수가 은퇴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들 중 가장 중요한 변수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의 은퇴자의

현재 상태 관련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모형에서 주로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 소득관련 변수보다 은퇴사유의 설명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사유는 Model I 부터 Model VII의 모든 모델에서 영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은퇴사유 중 건강상의 이유는 전모델에서 걸쳐 가장 높은 영향력을 가진 변수로 나타나, 은퇴에 대한 전반적 만족여부의 결정적 영향요인으로 밝혀졌다. 이는 은퇴 전 건강관리와 유지가 근로생애에서의 노동기간의 연장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은퇴 후 생활의 질을 유지하는데 있어서도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선행연구결과들(김효정 등, 2007; 이승렬, 2007; 한혜경, 2003)에 비추어본다면 건강상의 이유로 은퇴한 이들의 경우 은퇴 이후에도 건강상의 문제는 개선되지 않은 채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과 결부되어 의료비 지출에 있어 지속적인 부담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가구월소득 또한 모든 모델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가구월소득이 높을수록 조기은퇴에 전반적으로 만족할 확률이 높다. 이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조기은퇴남성의 소득이 없더라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이 안정적으로 조달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조기은퇴남성이 은퇴 후 전반적으로 불만족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이는 은퇴자의 은퇴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소득이 보장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근로소득 단절로 인한 경제적 문제가 은퇴생활과 직결되므로, 조기은퇴남성 이외에 소득을 가진 가구원이 없거나 가구소득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지 않은 여건에 처한 조기은퇴남성 가구에서는 은퇴자 자신뿐만 아니라 가구 구성원들까지도 경제적 어려움과 삶의 질 하락을 경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모든 모델에서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변수는 교육수준, 거주지역, 배우자 유무, 은퇴연령, 은퇴 전 일자리 직종(전문관리직), 은퇴 전 일자리 직종(생산기능직), 은퇴 전 일자리에서의 공적연금 가입여부이다. 즉 조기은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은퇴 전 일자리에서의 직종이나 공적연금 가입여부는 은퇴에 대한 전반적 만족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지 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은퇴연령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분석대상 조기은퇴자의 은퇴연령이 24세~59세까지로 나타나지만, 77.5%의 조기은퇴자들이 50대 이후의 연령에 분포하는 데 따른 결과로 보이며, 배우자 유무는 무배우자가 11.4%, 유배우자가 88.6%로 조기은퇴남성의 대부분이 유배우자에 편중된 분포를 갖는 것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인다.

Model I 부터 Model VII의 분석결과를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Model I 은 은퇴 후 조기은퇴남성의 현재 상태 관련 변수와 은퇴관련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은퇴에 대한 전반적 만족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표 3> 조기은퇴남성의 은퇴에 대한 전반적 만족여부에 미치는 영향요인: Binary Logit Analysis (N=552)

구분	변수	Model I	Model II	Model III	Model IV	Model V	Model VI	Model VII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현제 연령 상태 관련 특성	상수	-11.14(.215)***	-10.66(.220)***	-10.89(.229)***	-10.84(.228)***	-12.24(.227)***	-11.16(.223)***	-10.84(.254)***
	현재연령	.10(.02)***	.09(.02)***	.09(.02)***	.08(.02)***	.09(.02)	.08(.02)***	.09(.23)***
	교육년수	.04(.03)	.03(.03)	.01(.04)	.06(.04)	.03(.03)	.02(.04)	.04(.04)
	거주지역	-.46(.25)	-.46(.26)	-.46(.27)	-.45(.27)	-.43(.26)	-.42(.27)	-.38(.29)
	배우자유무 ⁵⁾	.07(.44)	-.07(.44)	-.03(.46)	-.03(.46)	-.07(.47)	-.32(.47)	
	가구원소득	.33(.10)**	.27(.10)**	.25(.10)*	.29(.11)**	.33(.10)**	.27(.10)**	.25(.12)*
	은퇴연령	.04(.02)	-.03(.03)	.03(.03)	.04(.03)	.04(.02)	.04(.03)	.02(.03)
	은퇴 전 취업형태	.33(.31)	.24(.32)	.53(.33)	.39(.33)	.43(.32)	.40(.32)	.54(.36)
	은퇴 전 일자리 각종 (전문관리직)	-.24(.46)	-.27(.46)	-.40(.49)	-.41(.47)	-.38(.47)	-.46(.47)	-.70(.50)
	은퇴 전 일자리 각종 (생산기능직)	-.20(.30)	-.20(.31)	-.33(.32)	-.17(.33)	-.22(.31)	-.28(.32)	-.36(.35)
주관적 삶의 만족도	은퇴 전 소득액	.46(.20)*	.43(.20)*	.38(.20)	.30(.20)	.41(.20)*	.36(.20)	.26(.22)
	은퇴 전 일자리에서의 공적연금 가입여부	.04(.29)	.05(.30)	-.12(.31)	-.05(.31)	.01(.30)	-.12(.31)	-.36(.34)
	은퇴사유(과산·도산 등)	-.75(.35)*	-.80(.36)*	-.49(.37)	-.84(.37)*	-.72(.36)*	-.81(.36)*	-.56(.40)
	은퇴사유(정년퇴직)	-.19(.38)	-.18(.39)	-.20(.40)	-.36(.39)	-.10(.38)	-.13(.39)	-.27(.42)
	은퇴사유(건강상의 이유)	-.143(.34)***	-.116(.35)**	-.103(.36)**	-.157(.36)***	-.132(.35)***	-.120(.36)**	-.91(.40)*
	건강상태 만족도	.02(.01)***						.00(.01)
	경제상태 만족도			.03(.01)***				.02(.01)**
	배우자 관계 만족도				.01(.01)			-.01(.01)
	자녀관계 만족도					.02(.01)*		.00(.01)
	동년배 비교 시 상대적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03(.01)***	.02(.01)*
-2Log Likelihood	398.539	384.506	367.729	358.876	383.213	372.234	322.104	
χ^2	109.691***	123.654***	140.431***	89.536***	111.380***	135.926***	119.449***	
Cox & Snell's R ²	.249	.277	.308	.232	.258	.299	.300	
Nagelkerke's R ²	.339	.376	.418	.316	.351	.407	.410	

*p<.05, **p<.01, ***p<.001

5) Model IV, Model VII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했으므로, 배우자유무 변수는 모델분석에 투입하지 않았음.

이다. 분석결과 조기은퇴남성의 현재연령(+), 가구월소득(+), 은퇴 전 소득액(+), 은퇴사유(파산·도산)(-), 은퇴사유(건강상의 이유)(-)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Model II부터 Model VII까지는 조기은퇴남성의 현재 상태 관련 변수와 은퇴관련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주관적 삶의 만족도의 하위요인을 추가 투입하여 분석한 것인데, 각 모델에서의 유의미한 영향요인은 각각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Model II에서는 현재연령(+), 가구월소득(+), 은퇴사유(파산·도산)(-), 은퇴사유(건강상의 이유)(-), 건강상태 만족도(+)가 은퇴에 대한 전반적 만족여부에 영향을 미쳤으며, Model III에서는 현재연령(+), 가구월소득(+), 은퇴사유(건강상의 이유)(-), 경제상태만족도(+)가 영향요인으로 나왔다. Model IV에서는 현재연령(+), 가구월소득(+), 은퇴사유(파산·도산)(-), 은퇴사유(건강상의 이유)(-)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으며, Model V에서는 가구월소득(+), 은퇴 전 소득액(-), 은퇴사유(파산·도산)(-), 은퇴사유(건강상의 이유)(-), 자녀관계 만족도(+)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변수였다. Model VI에서는 현재연령(+), 가구월소득(+), 은퇴사유(파산·도산)(-), 은퇴사유(건강상의 이유)(-), 동년배 비교 시 상대적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VII은 조기은퇴남성의 현재 상태 관련 변수, 은퇴관련 특성을 통제하고 주관적 삶의 만족도 모두를 독립변수로 하여 은퇴에 대한 전반적 만족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 현재연령(+), 가구월소득(+), 은퇴사유(건강상의 이유)(-), 경제상태 만족도(+), 동년배 비교 시 상대적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현재연령이 높을수록, 경제만족도가 높을수록, 동년배 비교 시 상대적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은퇴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할 확률이 높으며, 가구월소득이 낮을수록, 건강상의 이유로 은퇴할수록 은퇴 후 생활에 불만족할 확률이 높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경제상태 만족도와 동년배 비교 시 상대적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은퇴에 대한 전반적 만족여부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주관적 삶의 영역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은퇴에 대한 만족여부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은퇴자들의 현재 상태 관련 변수 같은 비교적 측정이 용이한 객관적 측면만이 주로 분석모델에 사용되었으나,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 은퇴자의 현재 상태와 은퇴 전 일자리 특성과 같은 은퇴자의 객관적 지표들은 주관적 측면이 함께 고려됨으로써 그 영향력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양자가 고려된 분석모델의 설계가 조기은퇴자의 은퇴생활 만족여부의 설명력을 더욱 높일 수 있다.

2. 조기은퇴남성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표 4>는 조기은퇴남성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의 다섯 가지 하위요인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이다. 우선 건강상태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모델에서는 교육년수(+), 가구월소득(+), 은퇴연령(+), 은퇴사유(건강상의 이유)(-)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은퇴자의 교육수준이 높거나, 가구의 월소득이 많거나, 60세 이전에 은퇴했으나 비교적 늦게 은퇴한 조기은퇴자이거나, 자발적 은퇴를 한 경우의 건강상태 만족도가 높다.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가 좋은 편인데(통계청, 2006), 이러한 점은 본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반면 교육수준이 낮거나, 가구의 월소득이 적거나, 비교적 이른 나이에 은퇴했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은퇴한 경우 건강상태 만족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상태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모델에서는 교육수준(+), 가구월소득(+), 은퇴연령(+), 은퇴 전 소득액(+), 은퇴사유(파산·도산 등)(-), 은퇴사유(건강상의 이유)(-)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학력일수록,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은퇴연령이 높을수록, 은퇴 전 고소득자였을수록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나, 파산이나 도산, 건강상의 이유로 비자발적 사유로 은퇴한 은퇴자일수록 경제상태 만족도가 낮았다. 이는 은퇴 이후에도 기대할 수 있는 가구소득이 있는 경우 은퇴 생활의 경제적인 부담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교육수준이 낮고 이른 나이에 은퇴한 조기은퇴자이거나, 가구의 고정적 소득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은퇴자이거나, 비자발적 혹은 건강상의 이유로 은퇴한 은퇴자들의 경우는 은퇴생활에 대한 경제적 대비를 하기에 충분한 소득을 갖추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이 은퇴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소득원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들에게는 근로 소득의 단절이 되는 은퇴경험이 노년기 빈곤의 근본원인이 될 수 있다.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모델에서는 교육수준(+), 배우자유무(+), 가구월소득(+)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거나, 유배우자이거나, 가구월소득이 높을수록 자녀관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저학력이거나, 배우자가 없거나, 가구월소득이 낮을수록 조기은퇴남성의 자녀관계 만족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은퇴로 인한 경제적 능력상실이 자녀관계의 질에 있어 크게 작용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배우자유무와 소득액이 자녀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취업하지 않은 자녀와 함께 사는 무배우자 조기은퇴남성 가구주의 경우 은퇴 이후 자녀와의 관계의 질 악화와 높은 수준의 갈등을 경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동년배 비교 시 상대적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표 4> 조기은퇴남성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의 영향요인: Multiple Regression

(N=552)

구 분	변 수	건강상태 만족도		경제상태 만족도		배우자관계 만족도 ⁶⁾		자녀관계 만족도		동년배 비교 시 상대적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B	(β)	B	(β)	B	(β)	B	(β)	B	(β)
	상 수	-41.15*		-43.43*		50.77**		35.14*		-18.60	
현재 상태관련 특성	현재연령	.15(.05)		.21(.07)		.05(.02)		.08(.04)		.28(.11)	
	교육년수	.75(.11)*		1.11(.18)***		.39(.08)		.57(.12)*		.82(.15)**	
	거주지역	-1.12(-.02)		-1.44(-.03)		-3.23(-.08)		-.85(-.02)		-2.66(-.06)	
	배우자유무	7.97(.09)		4.04(.05)				11.29(.18)**		12.01(.17)***	
	가구월소득	3.60(.17)***		3.87(.20)***		1.49(.10)		2.13(.14)**		2.58(.15)**	
은퇴관련 특성	은퇴연령	.71(.15)*		.53(.12)*		.06(-.02)		-.19(-.06)		.29(.08)	
	은퇴 전 취업형태	5.39(.08)		-2.92(-.05)		-5.16(-.11)		-.83(-.02)		-.49(-.01)	
	은퇴 전 일자리 직종 (전문관리직)	.23(.00)		2.68(.03)		5.24(.09)		.69(.01)		5.08(.07)	
	은퇴 전 일자리 직종 (생산기능직)	-.75(-.01)		2.33(.04)		-3.68(-.08)		-2.59(-.06)		1.03(.02)	
	은퇴 전 소득액	3.09(.09)		4.24(.13)*		2.23(.09)		2.42(.10)		3.32(.12)*	
	은퇴전 일자리에서의 공적연금 가입여부	.98(.02)		4.67(.09)		.94(.02)		-1.73(-.04)		4.51(.10)	
	은퇴사유(파산·도산 등)	.49(.01)		-9.99(-.15)**		-1.07(-.02)		.51(.01)		-.79(-.01)	
	은퇴사유(정년퇴직)	-.57(-.01)		-.71(-.01)		1.00(.02)		-3.24(-.07)		-2.14(-.04)	
	은퇴사유(건강상의 이유)	-17.85(-.26)***		-16.04(-.26)***		-1.74(-.04)		-2.57(-.05)		-11.58(-.21)***	
F	8.516 ***		11.766 ***		2.344 **		3.312 ***		9.633 ***		
R ²	.245		.310		.086		.114		.269		
Adj. R ²	.216		.283		.049		.080		.241		

*p<.05, **p<.01, ***p<.001

하는 모델에서는 조기은퇴남성의 교육수준(+), 배우자유무(+), 가구월소득(+), 은퇴 전 소득액(+), 은퇴사유(건강상의 이유)(-)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학력자일수록, 유배우자일수록, 가구월소득이 많을수록, 은퇴 전 소득액이 많을수록, 은퇴사유가 자발적 은퇴일수록 동년배 비교 시 상대적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거나 은퇴 후 가구소득이 확보된 조기은퇴남성의 경우 동년배와 비교할 때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삶의 질의 수준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은퇴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거나, 비교적 젊은 조기은퇴남성이거나, 저학력 조기은퇴남성이거나 동년배와 비교 시 상대적으로 삶의 질을 낮게 평가한다. 이는 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이른 시기에 직업지위와 경제력 그리고 역할을 상실함으로써 동년배와 비교 시 소외감이나 상대적 박탈감과 같은 심리적 위축과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6) 종속변수를 배우자관계 만족도로 하는 모델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60세 이전에 은퇴한 조기은퇴 남성들의 은퇴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여부와 주관적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은퇴 이전의 특성들을 포함하여 분석함으로써 조기은퇴 남성들이 인지하는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기초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조기은퇴자의 은퇴 이후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는 연구에서는 그들의 현재상태 관련 특성뿐만 아니라 은퇴이전 및 은퇴시점의 특성을 반영한 분석모델의 설정이 요구된다. 기존에 주로 사용되었던 은퇴자의 삶의 만족도 분석모델에서는 주로 은퇴자의 현재 상태 관련 특성들이 다루어졌으나, 본 연구에서 조기은퇴자의 은퇴에 대한 전반적 만족여부와 주관적 삶의 만족도의 분석모델에 현재 상태 관련 특성과 함께 은퇴관련 특성을 투입한 결과, 은퇴사유와 은퇴 전 소득액, 은퇴 연령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퇴사유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설정한 분석모델들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았던 가구소득보다 더 높은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삶의 만족도에는 과거와 현재의 상태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은퇴자의 현재 상태뿐만 아니라 은퇴 이전 및 은퇴시점의 특성도 함께 분석에 포함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은퇴 이후의 삶이 은퇴 이전의 과거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니라 은퇴 이전의 상태부터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나타내기도 한다. 따라서 향후 은퇴자의 삶의 만족도를 분석하는 모델에서는 이들의 사회인구학적·은퇴 이후의 특성뿐만 아니라 은퇴이전 및 은퇴시점의 특성까지도 함께 고려한 모델의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조기은퇴남성의 은퇴 및 삶의 만족도를 분석함에 있어서 이들의 사회·경제적 측면인 객관적 요인뿐만 아니라 심리적·정서적 요인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기은퇴자의 은퇴에 대한 전반적 만족여부를 분석함에 있어 현재 상태 관련 특성과 은퇴관련 특성과 같은 객관적 지표들을 분석 모델에서 사용하였다. 여기에 조기은퇴자의 심리적 측면인 주관적 삶의 만족도를 투입함으로써 조기은퇴자의 객관적 지표의 영향력이 달라지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조기은퇴남성의 은퇴적응과 삶의 질에 있어 심리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은퇴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에 동년배와 비교 시 상대적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와 같은 상대적 비교에 의한 주관적 평가가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경제수준과 같은 객관적인 지표보다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지는 상대적 비교감이 삶의 만족도에 예측력이 더 높다는 김형태(2005)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향후 관련 연구들에서는 조기은퇴자들의 심리적·정서적 특성이 반영된 분석모델의 설계 혹은 이들의 심리적·정서적 특성을 측정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배우자가 있는 조기은퇴남성의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함에 있어 적합한 접근방식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조기은퇴남성의 배우자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모델에서는 조기은퇴남성의 현재 상태 관련 변수와 은퇴관련 특성 변수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변수들이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결과는 조기은퇴남성의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에는 본 연구에서 포함하지 못한 심리적·정서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물론, 이들을 대상으로 한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측정방식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조기은퇴남성의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조기은퇴남성의 주관적·심리적 특성들을 포함하는 분석모델 혹은 이에 적합한 접근방식이 요구된다.

넷째, 은퇴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의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다양한 소득원 확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조기은퇴남

성의 은퇴전반에 대한 만족여부와 주관적 삶의 만족도에 가구소득의 영향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로써 은퇴 이후 가구의 경제력이나 소득원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은퇴자의 은퇴 이후 삶의 질은 급격히 하락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완전은퇴한 남성들의 주된 소득원이 배우자 근로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이라는 선행연구(김지경·김하늬, 2008)의 연구결과를 고려했을 때, 조기은퇴남성의 은퇴는 배우자의 추가적 소득활동에 대한 부담감과 자녀의 경제적 부담 등 조기은퇴자 가구 구성원의 전체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은퇴 전 일자리에서의 공적연금 가입여부가 은퇴 이후 경제적 만족도는 물론 삶의 질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시점에서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하나인 공적연금이 은퇴 후 은퇴 전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정된 소득원으로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은퇴준비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은퇴에 대한 시각을 개인적인 문제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가구차원의 문제로 인식해야 하며, 이에 대한 경제적 준비방안으로 소득원의 다양화가 요구된다. 근로소득이 가구의 주된 소득원이라면 조기 은퇴로 인해 이른 시기에 주된 소득원을 상실함으로써 경제적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은퇴 이전부터 개인연금을 포함한 연금소득, 금융/부동산 자산소득 등의 다양한 소득원을 확보함으로써 상실되는 근로소득의 위험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건강문제로 조기은퇴한 이들의 경우,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에 편입될 수 있으므로 의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은퇴사유 중 건강은 은퇴 후 삶의 질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특히 건강상태가 급격히 개선되지 않는 만성질환이나 장애를 가진 경우에는 은퇴생애에 걸쳐 스트레스가 증가하거나 정신건강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일자리에서 재해로 인하여 조기에 은퇴한 이들의 경우, 업무상의 질병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는 질병의 재발 혹은 악화 시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중고령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의학적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며, 노화로 인한 건강악화가 동반될 경우 건강문제의 지속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수반될 수 있다. 또한 2008년 7월부터 시작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65세 이상의 노인성질환을 가진 경우에만 해당되며, 건강보험·의료급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타인의 도움에 의지해야만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신청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있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65세 미만의 연령이거나 노인성질환이 아닌 질병·장애를 가진 이들은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 건강보험의 경우,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급여혜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의료급여대상자가 아니거나 피부양자가 아닐 경우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은퇴로 인한 소득감소로

장기제납 또는 피부양자 자격을 갖지 못하는 이들의 경우 건강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조기에 건강문제 은퇴한 이들의 경우, 연령 제약, 질병·장애 종류로 인한 제약, 소득감소로 인한 보험료 체납 등으로 인해 사회적 의료보호제도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이 수혜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강인(2007). 은퇴 남성 노인의 어려움과 적응에 관한 연구-자아 복잡성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2(3), 259-283.
- 김명자(1982).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0(3), 45-54.
- 김미령(2006). 전기, 후기 여성노인의 삶의 질 및 영향요인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8(2), 197-222.
- 김숙경(2004). 농촌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복지연구**, 23, 179-202.
- 김애순·윤진(1995). 은퇴 이후 심리·사회적 영향: 은퇴는 위기인가?. **한국노년학**, 15(1), 141-158.
- 김은미(2000). 은퇴한 남자 어른의 사회적 기능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경·김하늬(2008). 완전은퇴 남성의 주된 소득원천 및 소득액 결정요인.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1), 57-89.
- 김형태(2005). 상대적 경제수준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515-532.
- 김효정·고선규·권정혜(2007). 남자노인의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 결혼만족도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대회 논문집**.
- 모선희·강지현(2003). 55세 이상 은퇴자들의 노후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제4차 노동패널학술대회 자료집**.
- 박기남(2004). 노년기 삶의 만족도의 성별 차이. **한국노년학**, 24(3), 13-29.
- 박민서·조규범(2003). 노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지역발전연구**, 13(1), 287-303.
- 배문조·전귀연(2004). 은퇴에 대한 태도 및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2(7), 89-102.
- 서혜영·이숙현(2002). 아버지의 직업만족도 및 가족만족도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14(3), 27-51.
- 석말숙(2004).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생태 체계적 접근-지역사회거주 재가 노인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26 (겨울호), 237-261.
- 석상훈(2009). 은퇴 전후의 소득 및 소비 비교: 성장곡선모형을 통한 분석. **제10회 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 발표자료집**, 831-947.
- 성미애(1999). **남성퇴직자의 생활태도 유형화 및 유형별 퇴직 후 적용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종태(2007). **노인빈곤대책의 문제점과 소득보장정책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현구(2007). 노동시장 은퇴자의 은퇴 만족도 및 삶의 만족도. **노동리뷰**, 2007년 3월, 81-94.
- 신화용·조병은(2001). 남편이 은퇴한 부부의 자원과 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9(1), 39-51.
- 오승환·윤동성(2006). 노인의 삶의 질 특성에 관한 연구-도시, 농촌, 어촌지역 비교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32, 119-147.
- 유정이(2006). 노인의 연령에 따른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건강, 배우자 요인을 중심으로. **복지행정연구**, 22, 241-254.
- 윤진(1985). **성인·노인 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이가옥 외(2002). 노년기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국노인문제연구소
- 이승렬(2007). 은퇴자의 건강상태 분석. **노동경제논집**, 30(2), 61-86.
- 이은희·김금은·한규석·주리에(2004). 노인의 안녕감에 미치는 생성감의 역할. **한국노년학**, 24(3), 131-152.
- 이춘희·육선화(1994). 남자노인의 역할활동과 생활만족도. **가족학회지**, 6, 69-101.
- 이호성(2004). 노인의 건강상태와 의료비부담 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노년학**, 24(2), 163-179.
- 이호성(2005). 도시노인의 사회적 유대와 생활만족도 연구. **한국노년학**, 25(3), 123-138.
- 이현지·이금자(2008). 노인의 자긍심과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39, 175-194.
- 장현·이철우(1996). 노인생활만족도에 관한 시간적 차원의 연구. **한국노년학**, 16(2), 137-150.
- 전병희(2008). 평균 은퇴연령에 대하여. **계정포럼**, 146, 19-39.
- 조규범(2005). **노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명한·차경호(1998). **삶의 질에 대한 국가간 비교**. 서울: 집문당.
- 조병은(1990). 조부모와 성인자녀간의 결속도와 노부모의 인생만족도. **한국노년학**, 10, 107-121.
- 최정혜(1991). **노부모가 지각하는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및 갈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형수(2008). 노인의 삶의 질의 객관적 지표화 주관적 만족도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39, 347-372.
- _____ (2004). 한국사회 도시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사회**

- 복지정책, 19, 113-142.
- 한혜경(2003). 조기퇴직자의 우울감과 영향요인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1, 81-101.
- 한희자 · 강은실(2001). 은퇴자들의 은퇴 후 삶의 상태변화. **정신간호학회지**, 10(2), 203-219.
- Berg, C., Hallberg, I., & Blomqvist, K.(2006). Life satisfaction among older people with reduced self-care capacity : The relationship to social, health and financial aspects. *Journal of Clinical Nursing*, 15, 607-618.
- Biswas-Diener, Robert, Diener, Ed, and Tamir, Maya(2004). The psychology of subjective well-Being. *Daedalus*. 133(2), 18-25.
- Bosse, R., Aldwin, C. M., Levenson, M. R., & Workman-Daniels, K.(1991). How stressful is retirement?: Finding from the normative aging study. *Journal of Gerontology*, 46(1), 9-14.
- Bromley, D. B.(1990). 노인심리학. 김정운(역). 서울: 성원사.
- Campbell, A., P. E. Converse, W. L. Rodgers(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perceptions, evaluations, and satisfactions*. NY: Russell Sage.
- Chou, K-L., Chi, E., & Chow, N. W. S.(2004). Sources of income and depression in elderly Hon-kong Chinese :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financial strain. *Ageing and Mental Health*, 8(3), 212-221.
- Fiori, K. L., Antonucci, T. C., and Cortinas, K. S.(2006). Social network typologies and mental health among older adults. *Journal of Gerontology*, 61B(1), 25-32.
- Fouquereau, E. & Fernandez, A.(2005). Perceptions of and satisfaction with retirement. *Psychology and Ageing*, 20(3).
- Gallo, W, Bradley, E. H., Dubin, J. A., & Jones, R. N.(2006). The persistence of depressive symptoms in older workers who experience involuntary job loss. *Journal of Gerontology*, 16b(4), 221-228.
- Motel-Klingebiel, A., Tesch-Roemer, C., von Kondratowitz, H-J.(2003). The role of family for quality of life in old age. In V. L. Bengtson and A. Lowenstein(Eds.). *Global Aging and Challenges to Families*, N.Y.: Adline de Gruyter.
- OECD(2004). *Ageing and employment policies: Korea*. 1-147.
- Smith, J., Fleesom, W., Geiselman B., Settersern Jr. R. A., and Kunzmann, U.(2001). Sources of well-being in very old age. In P. B. Baltes & K. U. Myer(Eds.). *The Berlin Aging Study Aging from 70 to 100*.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ugisawa, H., Shibata, H., Houhham, G. W., Sugihara, Y., Liang, J.(2002). The impacts of social ties on depressive symptoms in U.S and Japanese elderly. *Journal of Social Issues*, 58(4), 785-804.
- Voydanoff, P. & Donnelly, B. W.(1999). Multiple roles and psychological distress : the intersection of the paid worker, spouse, and parent roles with the role of the adult chil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 725-738.

접수일 : 2009년 02월 26일

심사일 : 2009년 03월 26일

심사완료일 : 2009년 05월 21일